



현대과학과 언어적 전환

현대철학에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언어가 중요한 탐구의 주제가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플라톤의 '소피스트' 이래로 언어의 중요성이 자주 지적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항상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거나 진리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 혹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령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자신은, "언어 속에서 거처를 찾았으며 그것을 통해서 사물에 관한 진리를 규명하기로 하였다"고 술회한다. 근대에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비판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러한 논리가 중세의 기독교적 사상을 창출하게 했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새로운 논리학'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어휘를 잘못 선택하여 서투르고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해를 놀랄 만큼 방해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해를 좌우하고 또 완전히 혼란에 빠트리기도 하며, 심지어 사람들을 공허한 논쟁과 부질없는 공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언어가 존재를 창출하고 인식을 왜곡

그러나 오늘날 철학에서는 그러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 오히려 언어가 존재를 창출하고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우리가 존재를 인식함에 있어서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언어적 전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전환인가.

원래 철학은 신화로부터 '존재적 전환'을 이룩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철학의 시조인 탈레스가 잘 보여주었듯이 만물의 근원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하고 논리적 추론과 이성적 판단, 그리고 경험적 관찰과 실험에 의지해서만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하였다. 말하자면 텔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묻거나 시인들의 서사시에서 영감을 얻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 위주의 탐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가 "어떻게 진리를 탐구한다면 그 방법에 관심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자 그 양상이 달라졌다. 지금까지 탐구해온 존재의 본질과 현상의 구조가 모두 내가 지닌 인식 능력의 함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존재 그 자체보다는 인식의 구조와 그 주체인 나 자신의 심리적 현상에 관한 탐구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주체의 완성된 모습은 칸트의 비판철학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인식의 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볼 때 우리가 인식한 것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의 주관 이 구성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적 전환의 계기는 이 구성의 과정



글 **엄정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jsumek@hanmail.net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에서 언어적 의미가 개입된다는 사실을 의식함으로써 비롯된다.

언어적 전환은 독일의 수학자이며 논리학자인 고틀로프 프레게가 시도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논리의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논리는 개인의 주관에 앞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가령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리거나 원자폭탄을 폭발시킬 때 중력 가속도와 원자 구조의 이론 혹은 법칙을 사용하며, 이러한 것은 또한 실험과 관찰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인정한다. 한편 이러한 이론과 법칙이 새로운 관측의 결과와 모순된다면 그것은 곧 수정되거나 폐기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학은 논리 혹은 언어의 밖에 존재하는 ‘현상’에 관한 이론의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측 혹은 관측된 사실은 법칙이나 논리에 앞서 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프레게는 우리가 사실로부터 법칙을 끌어낼 때, 실제로는 암묵적으로 “사실과 대조함으로써만 법칙의 타당성, 혹은 그 확실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과학은 관측 자료로부터 법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이 법칙에 앞서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충실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논리적 언어로 구성된 법칙이 사실에 앞선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사실에 직접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과학에서조차 언어를 통해서만 외부 세계와 만나게 된다는 것이 프레게의 견해인 것이다. 그렇다면 철학의 주요 과제나 임무는 문체 그 자체나 인식의 주체에 관한 탐구보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의미나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대 과학의 성과가 ‘언어적 전환’ 계기 마련

언어적 전환에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현대 과학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유를 제대로 펼치기 위하여 이른바 ‘기초개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령 정신과

물질, 시간과 공간, 인간과 이성 등이 그것이다. 현대의 경험 과학은 이러한 개념들의 전통적 의미를 뿌리째 뒤 흔들어 놓았다. 그 중에서도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 파블로프의 연구성과는 특히 철학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칸트를 비롯한 근대 철학자들은 뉴턴적인 의미의 시공간개념을 가지고 물질을 다루었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한 이후 더 이상 그러한 개념에 천착할 수 없게 되었다. 데카르트는 정신을 의식으로 이해하고 후대의 철학자들도 이에 따라 육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규명하는데 몰두하였지만 프로이트는 그것이 빙산의 일각임을 보여줌으로써 ‘정신’이라는 개념을 무용하게 만들었다. 또한 파블로프는 조건반사 실험을 통해 개도 특수한 경우에는 선택 앞에서 신경질환적 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정신 현상에 대한 생리적 접근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견지되어 오던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기초 개념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비롯한 많은 경험과학자들의 성과에 영향을 받아서 현대철학은 더 이상 전통적인 개념에 의존해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무의미해진 것이다. 이것이 곧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탐구보다는 개념과 논리적 구조의 의미론적 분석에 현대 철학자들이 더욱 많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언어적 전환은 분석 철학의 중심인물인 비트겐슈타인에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그는 “과거에 신에게 무릎을 꿇듯 오늘날 인간들이 인과율에 맹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진리를 상대라 하고 종교와 오덕, 예술적 언어게임과 같이 그것은 또 하나의 언어게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프레게가 지적한대로 과학이론이 하나의 이론인 이상 완전히 언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현상에 대한 관측과 설명, 그리고 예측에 관여하는 한 단순히 언어 게임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과학에서의 언어적 전환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ST**